



일본해사신문, 2005년 정기선 10대뉴스 발표

M&A, 아시아-남미동안 신규개설 증가 등

일본해사신문은 최근 2005년도 정기선부문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정기선 10대 뉴스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 인수합병(M&A) 활발 △아시아-남미동안항로 신규서비스 개설 선사 증가 △연료비 등 비용 증가, 선사의 수익성 압박 △그랜드얼라이언스(TGA)와 뉴월드얼라이언스(TNWA) 제휴 발표 △상하이항 양산컨테이너 터미널 가동, 유럽항로 선박 기항 개시 △ 아시아발 미국 전용 수요 두자리수 성장, 중국발 중심으로 증가 추세 △미국 주요 항만 극심한 체선현상 해소 △8,000 TEU급 대형선 준공 본격화 △운임인상교섭 선사 고전, 하주의 반발 강세 △외항선사 독금법 적용제외 명암 교차, 싱가포르 용인, EC 철폐 제안이다.

M&A에서는 AP Moller-Maersk가 P&O Nedlloyd(PONL), Hapag Lloyd의 모회사 TUI가 CP Ships, CMA-CGM이 Bollore Group의 Delmas 해운 부문을 각각 매수했다.

비용 증가는 선사에 있어서 사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연료비의 상승을 배경으로 미 내륙운송화물에 대해 연유 할증료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시아발 기간항로의 수요는 2005년 미국, 유럽항 모두 10% 전반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북미항로에서는 태평양항로 취항선사들이 LA와 롱비치에 집중했던 물동량을 PNW(Pacific North West)서비스와 파나마 경유 all-water 서비스로 분산하고 항만 노동자를 확충함으로써 항만의 대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8,000TEU급의 준공량은 2005년 전년대비 2.3배인 25만346TEU(30척)이었다. 2006년은 2005년 대비 1.8배인 45만669TEU(53척)로 한층 더 증가될 예정이다.

COSCO Container Lines(COSCON)은 금년 세계 최대인 1만TEU의 컨테이너선을 모두 8척 발주하여 1만 TEU급의 문을 열었다.

외항카르텔 문제는 지난 12월 6일 싱가포르에서 밝은 뉴스를 들었지만, 14일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작년 10월 공표한 법개정 보고서대로 독금법 적용면제제도의 폐지를 제안했고, 호주의 동향도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2006년 이후를 예상하는데 힌트가 된다. 순풍항행을 해 온 정기선 업계에도 역풍이 불고 있어, 황천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TSA, 2006년 1월부터 유류할증료 부과기로 FEU당 590달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

아시아-미주 수출항로에 취항중인 해운선사들의 모임인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은 내년 1월부터 아시아 발 미국항 화물에 대해 연료유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는 FEU당 590달러로, 현재 수준보다 135달러(30%) 인상될 예정이다.

새로운 부과액은 TEU당 450달러(현행 345달러), FEU당 660달러(현행 510달러)로, LCL 화물에 대해서는 톤당 13달러(현행10달러)가 된다.